



[2019 대학별 수시 가이드]
전형방식 간소화 등
모집요강 꼼꼼히 체크
L5~L7



Economy

코스피	2322.88 (0.00)	코스닥	816.97 (0.00)
금리 (미국 3년)	1.92 (-0.06)	환율 (원/달러)	112.90 (+4.30) (8/31)



가을 반기는 코스모스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인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노랑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가을을 받고 있다. /뉴스시스

비싸야 더 잘 팔리고 때릴수록 오른다
(수입차) (부동산)

거품공화국의 위험한 질주

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① 수입차 열풍

각종규제에도 집값 상승
금융시장도 사고 잇따라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BMW 서비스센터

/정연우 기자

외제차와 명품이 잘 팔리는 사회, 각종 대책에도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고, 사고가 끊이지 않는 자본시장이 존재하는 곳. 그리고 경제성장에도 출산율은 떨어지고, 자살률은 높아지는 나라. 바로 2018년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다. 정상적인 현상과는 거리가 느껴진다. 한마디로 시장의 이상현상을 뜻하는 '아노말리(Anomalie)'다. 메트로신문이 '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을 주제로 합리적인 시장에선 보기 힘든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 봤다.

(편집자주)

"서비스센터에서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나 대우가 좋은 편이다. 연비가 훌륭하고 잔고장이 덜하다는 것도 수입자동차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서울시마포구에서 자영업업을 하는 조경민(34)씨의 말이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골프 1.6 tdi를 중고로 구입해 3년째 애용하고 있다. 같은 가격이라면 국산차보다는 수입차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BMW 등 차량의 잇따른 화재로 전량리콜에 이어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은 상태지만 수입자동차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시들지 않고 있다. 환경파괴의 원인이라는 비난에, 차량전소에 따른 재산 및 인명 피해 등의 리스크 요인이 있는 데도 외제차를 선택하는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수입차의 시장점유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통계에 따르면 수입차의 올해 누적대수는 16만627대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만5780대보다 18.3% 늘었다. 지난 해 판매된 전체 수입 자동차는 23만3088대로, 2016년 22만5279대보다 8000여대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 BMW 화재 피해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미 리콜된 차종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서다. 리콜 이후에도 계속해서 화재가 발생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결함의 다른 원인이 있는 게 아니냐

는 의혹이 제기되며 BMW의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기는 했지만 수입차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자동차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BMW를 바라보던 소비자들의 마음이 풍선효과가 되어 다른 수입차 브랜드로 옮겨갈 것"이라며 "수입차에 대한 갈망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국내 소비자들은 차를 선택할 때 타인의 시선을 염두해두는 경향이 있다"며 "차에 대한 소유욕과 과시욕은 국내 소비자들이 형성한 독특한 자동차 문화로, 수입차 인기의 무시할 수 없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수입차에 대한 이같은 '선망'은 수입차딜러들에게 좋은 '떡값'이 되기도 한다. '외제차'란 과시욕을 자극하면서 대대적인 할인해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여는 것이다. <3면에 계속>

/정연우 기자 yw964@

집사는 데 15년
삶의 만족 끝까지

체감실업 20%
자살 세계 4위

'헬조선'이 저출산 부추겨

(지옥 같은 한국사회)

지난해 출산율 1.05명
전 세계 최저수준 기록

소득 대비 주택값 15.3배
집값 오르는데 일자리 감소
자살률 4위, 삶만족도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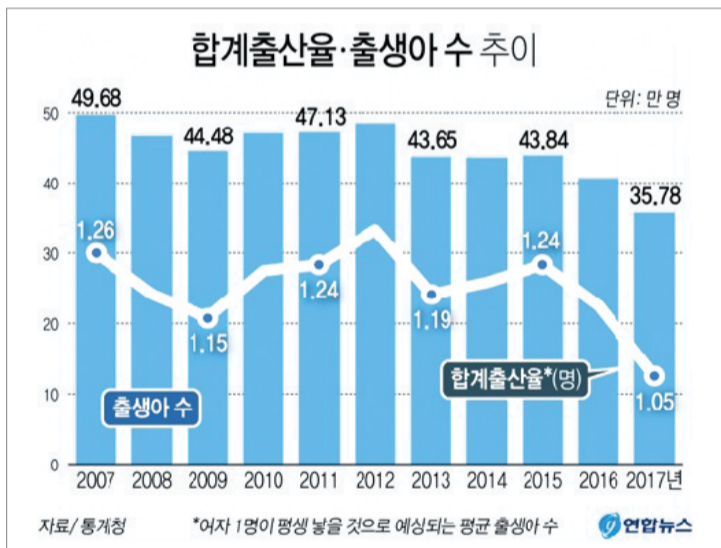
'일자리 없는, 집값은 비싸다. 자살률은 높고 아이는 낳지 않는다.' 2018년 대한민국의 우울한 자화상이다. 그래서일까. 청소년기부터 삶의 만족도는 바닥이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이 따라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한국의 저출산은 그 정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초저출산 국가가 최근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만 더 악화되고 있다. 결국 '헬조선'이 한국의 극심한 저출산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KDB미래전략연구소 정승원 연구위원은 2일 '저출산국제비교와 원인분석' 보고서에 통해 "한국에서 정신적 건강 악화, 기대수명 증가, 청년실업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가운데 기대수명 증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므로 이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원인은 불행한 삶이었다.

보고서가 국가 비교 통계사이트인 넘비오(Numbeo)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한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15.3배다. 연간 소득



이 5000만원이라면 집값이 무려 7억6500만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된다. 월급을 받아 한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도 집을 장만하는데 15년 이상이 걸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7배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13.9배에서 2015년 13.9배, 2016년 13.2배, 2017년 14.3배로 빠르게 상승했다.

2016년 세계 최저 출산율 4개 국가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이다. 이른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렸던 곳들로 모두 소득 대비 집값이 지나치게 높다. 홍콩은 46.9배며, 싱가포르 21.2배, 대만 17.5배 등이다.

집값은 고공행진을 하는데 일자리가 없다. 2017년 기준 청년 실업률은 9.8%였고, 체감 실업률은 20%를 초과했다. 높은 자살률과 낮은 삶의 만족도도 저출산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자살률은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26.9명으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자살률의 경우 2000년 동구권 국가가 매우 높았지만 크게 하락했고, 세계적으로

도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2000년만 하더라도 전 세계 자살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한국의 15세 학생 삶의 만족도는 2015년 6.36으로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15세 학생 삶의 만족도가 낮은 하위 10개국은 터키와 튀니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산율이 낮다.

경제발전으로 소득이 높아졌지만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소득과 저출산의 상관관계는 낮았다.

고소득국가 합계출산율은 1995년, 2000년, 2010년, 2016년 모두 1.7명이다. 한국은 1984년 이후 고소득국가 평균에 비해 출산율이 낮을 뿐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 격차가 확대됐다.

정 연구위원은 "초저출산을 경험한 동유럽 국가와 독일, 아시아의 출산율 추이를 보면 지역적, 사회적 환경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며 "이들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산율이 상승한 반면 한국은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자본확충, 보험사는 국내로 은행은 해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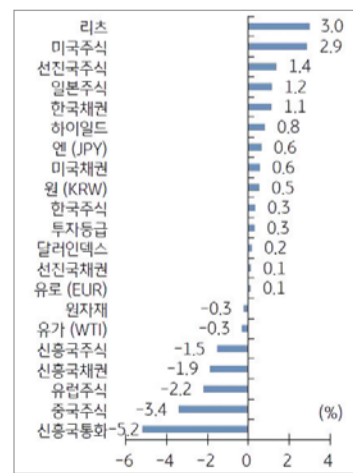
미·중 무역전쟁 등 여파
신흥국 회사채 수요 공공

해외 시장을 선호해 온 국내 보험사가 국내로 자금 조달 루트를 바꾸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신흥국 회사채 수요가 얼어 붙은 데다 국내 보험사가 발행한 영구채 금리에 거품이 끼었기 때문이다.

반면 실적과 신용도에 자신이 있는 기업과 은행은 해외에서 투자자를 찾고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매력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2일 투자금융(IB)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국내에서 5000억원어치 영구채(신종자본증권)를 발행했다. 절차에 들어가 당초 해외에서 5억달러(약 5600억원)어치 영구채를 찍을 예정이었지만 미·중 무역전쟁 여파 등으로 조달 여건이 나빠지자 자본확

(7월 말 이후 자산군별 수익률)



자료: Bloomberg, KB증권

충 무대를 국내로 옮기기로 했다. 신한국금융투자 임희연 연구원은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지급여력(RBC) 비율이 상승하고, 보완자본 확충 여력이 확대됐다. RBC 비율은 2분기 182.3%에서 204.0%로 21.6%포인트 상승한다"면서 "시장이 우려했던 추가

보완자본 확충 여력은 기존 2414억원에서 4914억원으로 확대됐다. 보완자본 한도에 이미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 인정되는 덕분이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를 목표로 해외 영구채 발행을 추진했던 한화손해보험도 지난달 31일 국내에서 1900억원어치 영구채를 사모로 발행했다.

교보생명도 지난달 10억달러 규모의 해외 영구채 발행을 잠정 보류했다.

현대해상을 비롯한 보험사들이 영구채 발행 무대를 국내로 옮기는 것은 금리 문제만 해결한다면 영구채가 현재 보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반면 실적과 신용도에 자신감이 붙은 은행과 증권은 해외에서 투자자를 찾고 있다. <2면에 계속>

/김문호 기자 kmh@